

제2절 사회단체¹⁸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를 위해 활동하거나 정부와 친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단체로, 정부로부터 재정적, 법적으로 육성·보호·지원을 받고, 동시에 관리를 받는 단체이다. 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특색이다. 둘째, 최근 복지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시민단체에 위탁사업을 전개하는데 지역사회의 사회복지협의회, 지방정부가 설립하여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의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이다. 셋째,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로 정치·행정과정에 합법적인 참여를 통하여 정부를 감시·비판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방법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법적으로 지원이 체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를 구분하는 기준을 보면, 첫 번째 기준은 전국이나 도 규모의 지부 혹은 지회인가 혹은 지역의 사회·문화 여건에 따라 자생조직으로 만들어진 조직인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 기준은 단체의 활동영역이나 성격 혹은 목적에 따른 분류이다. 통일, 보훈 단체, 봉사·복지단체, 아동·청소년단체, 문화·예술단체, 교육·연구단체, 권력감시단체, 경제정의 단체, 장애인단체, 농민단체 등이다. 세 번째 기준은 단체가 구성원의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가, 혹은 구성원 간의 친목 도모나 사회봉사 등 단체의 권익 옹호와 무관한 단체인지에 따른 분류이다.

대체로 사회단체와 시민단체는 정치성이 없이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한 지역 사회에 필요한 단체를 조례로 정한 단체들도 여기에 속한다. 다수의 사회단체는 주로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는 공공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단체로 지역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들이다.

현재 울진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전국적 조직의 지역 조직이거나, 자생적 단체라도 재정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단체는 없으므로 대부분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단체의 설립 목적과 연혁, 조직,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정부 단체, 국가보훈 및 유공 단체, 사회운동단체, 복지단체, 봉사단체, 친목 단체, NGO 단체 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8. 울진군의 사회단체는 정부나 울진군으로부터 예산지원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회단체와 울진지역에서 정치, 사회 분야에서 지속적이며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울진군 내부 자료와 『디지털울진문화대전』, 『군정백서』, 『울진통계연보』 등의 자료와 각 단체별 현지 조사를 통해 기술하였다.

1. 정부 단체

1) 울진군지역발전협의회

울진군지역발전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시·도 발전협의회 등의 설치]에 근거한 정부 단체로서 지자체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울진군지역발전협의회는 2004년 12월 27일 울진군 지역혁신협의회회의 이름으로 처음 구성됐으며 지역개발, 인재 양성, 문화관광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김운한 위원장을 포함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2009년 5월 15일 균특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이 지역발전협의회로 변경됐으며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오영숙 위원장을 포함하여 26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2011년 4월에 울진군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을 발령하고 군청 대회의실에서 4기 위원 위촉식을 겸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2015년 6월 15일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19일 울진군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은 폐지됐다. 조례 제정으로 5기 위원회부터 위원은 60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분과위원회도 생태문화관광, 지역개발, 농·수산, 보건·의료 등 4개 분과로 재편되었다. 이어 2018년 11월 28일 7기 위원회부터 소통, 복지, 활력, 쾌적 등의 분과위원회가 증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5년 11월 19일 경북순환철도[울진~분천] 조기 건설 포럼에 참석했으며 2016년 5월 18일에 울진~분천 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2017년에 울진군 해수욕장 7곳을 대상으로 친절, 청결, 바가지요금 근절 등 울진사랑운동을 전개하고 2018년 5월에 울진군 미래전략사업 도지사 공약 반영을 건의했다.

2. 국가보훈 및 유공 단체

국가유공관련 단체는 국가유공자 단체, 참전유공자 단체 등 개별단체별로 성립,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근거한 법정 단체가 대부분이다. 전국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지부나 지회로 활동하고 있다.

1) 광복회 대구·경북지부 울진군지회

경북 울진군 울진을 읍내리에 있는 독립 유공자 및 유족 단체이다. 광복회 대구·경북지부 울진군지회는 국권강탈 이후부터 8·15광복까지 활동한 경상북도 울진군 지역의 독립 유공자 및 유족들이 조직한 단체로, 광복회 대구·경북지부의 산하 단체로 되어 있다. 회원 자격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국광복에 이바지한 공로로 건국공로훈장, 건

국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서훈받은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을 수행한 선열들의 정기를 선양 및 계승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1992년 광복회 대구·경북지부 울진군분회로 출범하였으며, 2007년 광복회 대구·경북지부 울진군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초대 분회장으로 남중학이 취임하였으며 2018년 현재 전광순이 지회장을 맡고 있다. 선열 추모 행사, 선열 업적 홍보, 회원의 복지 향상 도모, 후손들의 학비 보조 지원, 기념비 묘비 건립 지원, 독립 유공자 발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회원들의 가정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유적지 순례 등의 활동도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4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등 27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북지부 울진지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이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는 조국과 세계평화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베트남 참전의 참뜻과 베트남 전쟁에 대한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국민과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참전유공자들의 권익 신장과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북지부 울진지회는 우리 민족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을 통하여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조국의 안보를 확고히 하고 국위 선양과 번영을 가져오게 한 개척자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를 바탕으로 후세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올바르게 전하고, 전우 간의 친목 도모와 베트남 참전유공자들의 권익 신장 및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3년 6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창설됨에 따라 1998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북지부 울진지회가 발족되었다. 초대 회장에는 최호득이 선임되었으며 2018년 현재 지회장은 김치석이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경북지부 울진지회에서는 청소년 선도 및 야간 방법 활동, 환경 정화 및 보호 운동, 불우 전우 및 고엽제 전우 돕기, 문화시민운동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활동 사항으로는 전적지 순례 및 회원 친목 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8년 현재 회원 200명이 활동하고 있다.

3)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울진군지회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국가수호자 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조국 통일 성업 달성 등 국가 발전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19880년 5월 30일 발족됐으며 1994년 12월 31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단체 명칭을 변경하였다.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되며 회원은 무공수훈 국가유공자이다. 국가 발전과 보훈 정책에 대한 협조, 전쟁 억제와 세

계평화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구와의 유대강화, 회원들의 복리 증진 및 유공자 간 화합유도, 국가안보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며 연 20회 활동한다. 초대 회장은 진명화이며 2018년 현재 지회장은 이종식이다.

4)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진군지회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국가수호자 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여 조국 통일 달성 등 국가 발전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1951년 5월 15일 대한상이군인회의 경북지부 군지회 발족하여 1953년 10월 1일 대한상이용사회 경북지부 군지회로 개정하였다. 1961년 5월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단체 해체되었다가, 1963년 8월 27일 대한상이군경회 경북지회 울진분회로 설립되었다. 1982년 5월 28일 대한상이군경회 대구·경북연합지회 울진군분회로 개칭되었다가 1986년 7월 1일 대한상이군경회 경북지회 울진군분회, 1989년 1월 1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경북지부 울진군지회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회 회장과 회원은 상이 급수를 받은 국가유공자이다. 6·25전쟁 때 다친 경우, 전쟁이 아닌 국내 공상, 월남 참전 당시 고엽제나 일반 피해, 북파 요원[2명]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2018년 현재 회원은 약 189명이며, 상이 급수는 7급까지로 하고 있다.

감찰·지도위원회의, 충훈답 참배 및 정화, 보훈병원 위문 행사, 고령 회원 위안 행사, 내방회원 접대, 80세 이상 회원 위문, 보훈의 달 불우회원 위문, 병환 중 회원 방문 위로, 연말연시 불우회원 위문 행사 등을 한다. 또한, 매월 충훈답 참배하고, 6월 보훈의 달에는 불우회원 위문과 함께 국립묘지 참배한다. 주요 역할은 국가 발전과 보훈 시책에 대한 협조, 전쟁 억제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구와의 유대강화, 회원들의 복리 증진 및 유공자 간 화합 유도, 국가안보 의식 고취에 이바지한다. 초대 회장은 손천연이며, 2018년 현재 지회장은 김수현이다.

5)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울진군지회

회원권의 신장 및 명예보전, 단체와 회원 간의 신뢰 화합 및 조직 정립, 존경받는 국가유공자 단체상 구현을 목적으로 1963년 8월 13일 창립됐다.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전몰군경 유공자 미망인이다. 목적과 주요 활동은 국가 발전과 보훈 시책에 대한 협조, 전쟁 억제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구와의 유대강화, 회원들의 복리 증진 및 유공자 간 화합유도, 국가안보 의식 고취에 기여, 국가 발전 및 세계평화와 조국 통일의 완수를 위한 사업, 정부의 보훈 사업에 대한 협조, 회원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자활 정착을 위한 사업, 현충 시설의 보호와 정화사업을 연 20회 정도 활동을 한다. 초대 회장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8년 현재 지회장은 서분점이다. 회원은 160명이다.



<그림 1> 대한민국 전물군경 울진군지회

6) 대한민국전물군경유족회 경상북도지부 울진군지회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전물군경 유족회 모임이다. 회원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호국 전물 장병의 유지를 받들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조국 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63년 8월 23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하였다. 회원 간의 상호 부조와 친목, 국가 발전 및 세계평화와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 정부 보훈 사업의 지원과 회원 권익 신장 및 복지증진 사업, 자활 정책 사업 등이 있다. 일반 국민의 애국심과 보훈을 선양하는 사업, 현충 시설의 보호·정화 사업, 지역 사회 봉사활동과 전방 155마일 순례 행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초대 회장은 주현이었으며 2018년 현재 지회장은 최천학이며 9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유관단체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울진군지회와 대한민국전물군경미망인회 울진군지회가 있다. 조국 수호를 위해 순직한 전물군경들의 유가족들이 산업화하여 가는 지역 사회 내에서 곤궁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지지와 원조가 요청된다.

7) 6·25참전유공자회 울진군지회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소재하며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 및 그 자녀로 구성된 단체이다.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공자 및 그 자녀들의 복리 증진, 국가 차원의 호국 안보, 민주 수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0년 5월 31일 6·25참전용사회를 결성하고 초대지회장에 진명화가 선출된 후 2002년 6·25참전전우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6년 뒤인 2008년 2월 6·25참전유공자회로 다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8년 현재 박순영이 지회장을 맡고 있다.

6·25참전유공자회 울진군지회는 울진군 지역의 참전유공자 및 그 자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설립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지회장,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회원은 395명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공자 회원은 감소하고, 유공자 자녀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냉전 체제 종식 이후 6·25 참전유공자들의 자리매김조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참전유공자들과 보훈 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지역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요청된다.

3. 사회운동단체

사회운동단체는 국가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들을 말한다.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진군협의회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제도화하여 민족의 염원인 통일정책을 초정파적·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창설하였다. 1980년 10월 27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설치[헌법 제68조]하여 1981년 3월 14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4월 7일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사무처를 창설하여 6월 5일,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출범하였다. 1987년 10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기관명을 변경[헌법 제92조]하였으며, 2015년 7월 1일,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출범하였다.

조직은 회장, 부회장, 간사,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은 자문위원(40명)과 행정실장(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역할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고, 지역주민들의 통일여론을 수렴,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 평화통일포럼과 세미나, 통일 강연회 등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과 공감대 형성 활동, 통일시대 시민 교실과 대북정책설명회 등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북한 정세 등에 관한 이해 제고, 분기별 정기회의와 현장 여론조사 등 국민 저변의 통일여론을 수렴하는 활동, 청소년 눈높이 통일교실과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등 통일 후계 세대 육성 활동,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문화사업 등을 지속해서 전개,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선도적 역할 등을 수행한다.

울진군협의회는 울진군 울진중앙로 53 고우이회관 2층에 위치하며 1981년 6월 5일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제1기 출범 회의와 함께 출범하였다. 1983년 6월 1일 2기 협의회 출범과 함께 9기인 1999년 6월 30일까지 정삼엽이 협의회장을 맡았으며, 김기현·김진복·정일순·전태석·김상

육·남상중·박경조·김주옥 협의회장을 거쳐 2019년 9월부터 황천호가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2) 바르게살기운동 울진군협의회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국민정신 운동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을 실천하고자 설립되었다. 바르게살기운동울진군협의회는 국민의 정신혁명을 선도하는 국민운동 단체로서 진실,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능동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12월에 사회정화국민운동이 설립되었고 1989년 3월 24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개칭하였다.

1991년 12월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법률 제4465호)이 제정되어 1992년 4월 바르게살기운동 울진군협의회가 발족하였다. 2000년 5월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직은 사무국, 총회와 임원회, 여성회, 산악회, 청년회가 있다. 군협의회의 하부 기관으로 읍·면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읍 단위는 3개 위원회, 면 단위는 5개 위원회가 있다. 회원은 총 381명이다. 회장, 사무국장 1명, 각부 단체회원 381명[바르게살기운동여성회 75명, 바르게살기운동청년회 35명, 바르게살기운동산악회 27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대 회장은 임00이며 주재옥·남종열·임상규·주진용·홍순일·주시원을 거쳐 2018년 3월부터 김정화가 회장을 맡고 있다.

3) 울진군새마을회

새마을운동을 계승하며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국민운동으로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 정신에 나눔, 봉사, 배려를 실천 덕목으로 선진 국민 정신함양운동을 전개하는 지역 최대의 풀뿌리 국민운동단체이다. 1970년대, 경제 위주의 잘살기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부터는 민간주도의 국내 최대 자원봉사운동이자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이념과 활동영역을 넓혀, 이웃 간에 서로 돕고 배려하여 화합과 질서 분위기를 조성해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울진군새마을회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울진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0년 12월 1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를 창립하였다. 1981년 3월 2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대통령령]을 제정하였다. 1984년 3월 21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울진군지회가 설립되었으며, 1985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호월리 새마을 농장이 조성되었다. 2008년 11월 20일 사단법인 울진군새마을회로 법인 전환되었으며, 2010년 11월 26일 울진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 2013년 4월 2일 울진군 새마을 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울진군 새마을회는 1995년부터 매년 자원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열고 있으며 2000년부터 매년 11월에 사랑의 김장김치담그기 행사를 열고 있다. 2006년부터 다문화 가정 돕기를 계

속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랑의 쌀 나누기, 취약계층 주거 돌보미, 사랑의 집 고쳐주기, 경로잔치 및 독거노인 돌보미,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새해 첫날 새마을부녀회 중심으로 해맞이떡국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지역 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피서지 새마을문고를 매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말 현재 신용철 회장을 포함 이사회, 사무국[사무국장 1명, 지도과장 1명] 등으로 조직이 편성되어 있다. 회원 단체로는 새마을지도자 울진군협의회, 울진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울진군 지부가 있다. 새마을지도자 울진군협의회 초대 회장은 주기돈이며 현 회장은 백태진이며, 새마을부녀회의 초대 회장은 이금자이며 현 회장은 황영분이다. 또 새마을문고 울진군지부의 초대 회장은 우성열이며 2019년 현재 회장은 이미경이다. 2019년 말 현재 새마을회는 새마을지도자 435명을 포함하여 1,83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림 2> 울진군새마을회

4) 한국자유총연맹 울진군지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53에 위치하며 한국자유총연맹 산하 단체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고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해 협조하며 세계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다지기 위해 설립되었다.

1963년 12월 「한국반공연맹법률」 공포에 따라, 반공을 기치로 1965년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가 설치되었다. 1966년 6월 22일 한국자유총연맹 울진지부 결성준비위원회를 위촉하고 1966년 11월 22일 한국자유총연맹 울진지부 초대 지부장에게 서관석, 사무국장에 임성률이 위촉되었다. 1967년 5월 임직원 2명, 자문위원 5명, 운영위원 20명 등으로 지부의 임

원을 구성하였으며 소속 회원은 145명이었다.

1980년 7월 20일 반공전시관 설립을 추진하였다. 1989년 4월 1일 한국반공연맹을 발족적으로 해체하고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승계하였다. 같은 해 4월 7일 문익환 목사의 월북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반공을 기치로 출발한 한국반공연맹이 동서 화해 이후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업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민주시민 교육 등의 국민운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밖에 평화통일 국민운동 사업, 청년·여성 자원봉사활동, 국제 교류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초대 지부장 서관석을 시작으로 최진홍·전기순·최상정·김기출·윤원규·남중수·정창화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박원규가 지부장을 맡고 있다.

4. 복지단체

복지단체란 사회의 소외된 계층들이 자신의 권리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들이다.

1) 경북시각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소재한 시각 장애인 단체이다. 경북시각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는 지역의 시각 장애인들의 교육, 문화, 체육, 직업 재활 및 사회복지 활동과 사회 부조 등을 통하여 법적 지위를 향상하고 자립 의욕을 고취시키며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통합 조정하여 시각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옹호함으로써 완전한 평등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9년 3월 설립하였다.

1989년 3월 31일 경북시각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를 창설하였고 초대 분회장에는 이순학이 취임하였다. 그 후 1996년 12월 11일 이금석이 지회장에 취임하였으며 2000년 1월 1일 김정자가 지회장에 취임하였다. 그 후 2004년 7월 장애인심부름센터가 부설되었고 2007년 7월 19일 정명광이 지회장에 취임하였다.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여 이동과 사회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차량 운행과 안내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동권 확보와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사회활동과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의 재활 등 생활의 각 방면을 돕고 있다. 매년 4월 장애인의 날 행사와 5월 순회 교육, 6월 노인잔치, 7월 하계수련회, 8월 지도자 연수회, 10월 흰 지팡이 행사, 11월 점자 기념 참석, 12월 정기총회 겸 소년·소녀 가장 돕기 행사 등 매년 매달마다 시각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현재 지회장과 부지회장 및 총무 1명, 재무 1명, 감사 2명, 상근 사회복지사 1명, 일반회원 6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회장은 임영선이다. 2008년 울진군에서 3억1000만 원을 투입하여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구 우시장 부지에 190.14㎡의 사무실과 157.7㎡의 작업장

을 마련했다. 그동안 각기 흩어져 있던 지역의 장애인 관련 단체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와 경북시각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가 1월 초에 입주하여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다. 작업장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의 물수건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경북시각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가 시각 장애인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제반 사업들, 특히 정보화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각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적극적인 개발과 건의를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시각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청된다.

2)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공세항길 19-60에 있는 사회복지단체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는 울진군 관내 거주하는 지체장애인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사회참여 확대, 재활 및 자립을 도모하여 지체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9년 3월 30일 울진군 장애인협회가 창립되었고, 초대 회장에는 남상천이 취임하였다. 1992년 4월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38-8 건물 지하에 입주하였다가 1999년 3월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공세항길 19-30으로 이전하였다. 2001년 3월 울진군 지체장애인협회 보호 작업장과 세탁소를 개소하였다. 2003년 12월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현내항길 96으로 이전하였다.

2005년 1월 민원·편의상담실센터를 개소하였다. 2006년 1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로 법인 등록하였다. 2007년 12월 31일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공세항길 19-60으로 이전하였다. 2008년 3월 창립 19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같은 해 6월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복지차량운행센터를 개소하였다.

역대 회장으로는 제2대 주시환, 제3대 최형무, 제4~6대 황중모, 제7대 노원일, 제8~10대 박복석, 제11~12대 김광술, 제13~14대 황중모, 제15대 장무광 회장을 거쳐 이외숙 회장이 재임하고 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는 지역사회 지체장애인들의 결속체로서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재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취업 등 각종 상담과 여타 장애인 단체와 연대 사업 등을 통해 지체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위로와 격려 및 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념식을 개최하고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참가하였다. 5월에는 경북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하였다. 7월에는 지체장애인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지회와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복지 정보 등을 교환하였다.

2011년 현재 조직은 회장, 명예회장,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장, 10개 읍면 분회 아래 조직관리부, 여성부, 홍보부, 복지사업부의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관리부는 장애인종합민원상담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복지차량운행센터, 재활자립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회원은 총 1,771명이 가입되어 있다.

3) (사)경북농아인협회 울진군지부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2009년 12월 8일 설립되었다. 조직구성은 지부장 1명, 수화 통역사 2명이다. 울진지역 청각·언어장애인은 50명이다. 초대 회장은 지용해였으며, 현재 지부장은 추용학이다.

농아인의 취업 알선, 문해 교육, 법률상담 등을 대변, 농아인의 권익 옹호, 농아인에 대한 사회적 계몽을 하며, 울진지역의 청각·언어장애인 및 건청인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주요 활동으로 첫째, 문해 교육으로 비문해농아인에게 수화 및 한글과 일반학습 지도, 둘째, 수화교육으로 농아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수화 인구 확대와 농아인에 대한 인식제고, 셋째, 사회교육으로 농아인들에게 지식·정보의 습득 및 알 권리를 충족, 넷째, 기타사업으로 농아인 관련 행사 참여 및 권익 보호 사업을 한다.

4) (사)경북뇌병변장애인협회울진군지회

울진읍 울진중앙로 47-20에 위치하는 울진지역 뇌병변장애인 자활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는 단체이다. 2016년 2월 29일 창립됐으며 뇌병변장애인 인권상담과 이동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원 수는 118명이며 황재영이 회장을 맡고 있다.

5) (사)경북장애인부모회 울진군지부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북로 496-11에 위치하는 장애인 권익도모 단체로서 장애 자녀를 둔 경상북도 거주 부모님들이 하나가 되어 자녀 양육 및 재활 정보를 교환하며, 자녀들이 한 사회인으로서 정당하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장애인의 부모 중심으로 발달 재활 서비스와 가족 사례 공유 및 관리, 가족지원 사업 등을 수행한다.

2006년 4월 울진지역 학령기 장애아동 부모 간담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30일 창립하고 2008년 울진장애인부모회 가족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어 2008년 곰두리대학을 운영하고 같은 해 5월에 (사)경상북도장애인부모회 울진군지부 법인등기를 마쳤다. 2009년 2월,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을 개시하고 같은 해 5월 경상북도청소년자원봉사터전 인증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그루터기 학교를 운영하고 2012년 제1회 울진군 청소년 인권캠프를 운영했다. 2013년 1월에 치료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10월에

곰두리대학교 두리카페를 개소했으며 2018년 11월에 울진자립체험홈을 개소했다.

초대 회장은 김신애가, 2018년 이후 현재는 이대형이 맡고 있다. 회장과 감사, 이사회와 치료지원사업단, 사례관리, 가족지원, 직업 재활, 주간 보호 등의 조직체계를 갖추었으며 회원은 258명이다.

6)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울진군지부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장애인 발생 방지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교통사고 장애인들에게 의료 재활뿐만 아니라 심리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적 재활 서비스를 시행해 장애를 수용하고 잔존 능력을 계발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며, 장애인들이 가정 및 사회생활의 재적응을 유도하고, 전직에 복귀 또는 장애 정도와 능력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생산적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25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를 설립하고 1996년 4월 30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를 창립하였다. 1996년 초대지회장은 진효은, 2002년 제5대 지회장은 임원식, 2008년 제8대 지회장은 심두섭, 9대 전종순을 거쳐 현재 서대용이 지회장이다. 2018년 현재 지회장과 고문, 그리고 부회장, 사무국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외 24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울진군에서 3억1000만 원을 투입하여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구 우시장 부지에 190.14㎡의 사무실과 157.7㎡의 작업장을 마련했다. 이로써 각기 흩어져 있던 지역의 장애인 관련 3개 단체인 교통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와 경북시각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가 각각 1월 초에 입주하여 한 곳에 모이게 되었으며 작업장은 교통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의 물수건 사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회는 교통안전 의식계도 및 캠페인,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및 장애인 취업 상담, 차량 이동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군위군 교통안전 결의대회 및 캠페인, 하계수련회[교통장애인의 재활 의지 고취 및 회원 간 유대감 형성], 주거개선사업[교통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낯은 주거지 개선], 교통안전 캠페인[연 10회 이상], 교통유자녀지원, 교통안전 전국순례, 타이어 공기압 체크, 교통장애인 정보화 교육 및 취업역량 강화, 교통사고 예방 체험교육 등을 한다.

5. 농어업인 단체

1) (사)울진군친환경농업인연합회

울진지역 전문농업인들이 환경친화적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구성한 단체이며 2015년에 설립됐다. 현재 회장은 손동영이며 6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 (사)전국한우협회 울진군지부

울진지역의 한우 생산 농가의 권익을 도모하고 지역 내 한우 등 축산산업 발전과 울진지역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됐다. 주진광이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4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3) (사)한국농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

울진군 농업경영인의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새천년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와 농정 개혁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농업인의 사회·경제·정치적 권익 향상을 위한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고, 통일대비, 식량안보 및 남북농업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1980년 11월 농어민후계자육성 기금법을 제정하였고, 1987년 12월 전국농업인후계자연합회 창립하였다. 이어 1991년 3월 한국 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로 개칭하였고 1995년 1월부터 현재까지 1개 연합회 10개 읍·면회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조직은 연합회장, 부회장은 수석, 사업, 정책, 대외 등 4명, 감사 2명, 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현재 1개 연합회, 10개 읍면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울진군 내 농업경영인으로 각 읍·면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현재 회원은 464명이다. 울진군 농업인학습조직체에서 생산기술, 경영기술의 보급과 교류,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 역할을 하며, 주요 활동은 생산기술, 경영기술의 보급과 교류, 농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와 상담,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초대 회장은 김상철이며 2019년 현 회장은 권수경이다.

4) (사)한국농촌지도자 울진군연합회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에 있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경상북도연합회 산하 울진지역 농촌지도자 단체이다. 우애·봉사·창조의 정신을 토대로 과학영농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후계자 육성과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인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농촌근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47년 4H 구락부 성인 자원 지도자로 농촌 운동에 참여한 것이 시초가 되어 조직됐다. 1962년 4월 농촌지도자회로 출범하였다. 1970년 3월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1976년 12월 새마을영농기술자회로 개칭하여 활동해 오다가 1989년 3월 현재 농촌지도자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합회장, 부회장 2명, 감사 2명, 총무, 회원으로 구성된다. 연합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원은 지역사회에서 시범 영농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선도하고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주도하며, 농업인학습조직체를 육성 지도하는 남·여로 구성되어 있다.

울진군 농업인 학습조직체 내에서 과학영농기술정보 교환 및 시기별 주요 과제교육, 농

업인 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활동은 보급 종자 생산, 선진농업 연구, 후계농업인 육성하고, 농업인 권익 보호를 한다.

농촌지도자울진군연합회는 농촌지도자 울진읍회·농촌지도자 평해읍회·농촌지도자 북면회·농촌지도자 금강송면회·농촌지도자 근남면회·농촌지도자 매화면회·농촌지도자 기성면회·농촌지도자 온정면회·농촌지도자 죽변면회·농촌지도자 후포면회 등 총 10개의 지회에 58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초대 회장은 장형구이며 2019년 현재 회장은 장광섭이다.

5)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울진군연합회

중앙연합회와 연계하여 울진지역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과 함께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1년 10월 22일 설립하였다. 울진군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북부지회와 남부지회를 보유하고 있다.

2007년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매년 울진대게, 붉은대게 축제에 참여하여 울진특산물인 울진대게와 붉은대게를 홍보하고 염가 판매하여 수익금 전부를 불우 이웃돕기성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또 매년 경북도수산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하며 2018년에 경북도 대회를 울진군에서 개최하였다.

초대 회장은 김장수가 맡았으며 2대, 임병옥 전 죽변수협장, 3대, 김장수, 4~5대 장광병, 6~7대 김명기, 8~9대 박강호가 역임하고 현재 10대 회장은 정유관이 맡고 있다. 회원 수는 2020년 신규 회원 포함하여 360명이 활동하고 있다.

6) 쌀전업농 울진군연합회

울진지역의 논농사 경영인이 식량 주권 확보와 벼농사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쌀 생산을 증진하기 위해 구성한 농업인 단체이다. 1999년 설립됐으며 대표자는 정영산이다. 13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7) 울진군 귀농귀촌연합회

울진지역에 귀농과 귀촌을 한 귀농·귀촌인들이 귀농과 귀촌 정보와 생활 정보 등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2013년 구성한 단체이다. 귀농 관련 상담과 멘토링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1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현 대표는 김영기이다.

8) 울진군 4-H 연합회

농촌지도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군내 4-H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 기술교육 공동사업의 유대와 협조를 긴밀히 하고 그 활동을 조성하게 하는 동시에 4-H 운동을 더욱 향상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1957년 군위군 4-H 구락부 연합회를 발족하였다. 1965년 전 마을 단

위에서 4-H 구락부를 결성하고, 1979년 4-H 구락부에서 새마을 청소년회로 개칭하였고, 1990년 울진군 4-H 연합회로 개칭, 오늘에 이르고 있다. 4-H 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장, 체육부장으로 구성된다. 회원은 실제 거주지가 울진군인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한다. 초대 회장은 장형칠이며 2019년 현재 회장은 이호기이다.

9) 축산기업중앙회 울진군지부

울진지역의 축산농가와 정육 유통 상인들의 모임으로 1965년 설립됐으며 울진지역 한우 도축 후 회원 식육점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3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안성렬이 대표자이다.

10) 한국생활개선 울진군연합회

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농촌 지역 사회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각종 학습활동을 선도 실천하며, 농촌 여성의 지위 및 권익 향상, 농촌을 지켜나갈 여성 후계 세대 육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1958년 농촌부녀자 학습단체로 생활개선 구락부를 발족하였다. 1977년 7월 8일 부녀단체통합 새마을부녀회 내의 생활개선부 활동하였고, 1990년 7월 20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분과 위원회 활동하였다. 1994년 11월 2일 사단법인 생활개선회를 설립하였다. 2010년 8월 17일 생활개선 울진군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5년 7월 1일 한국생활개선 군위군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회장, 수석부회장, 차석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국장, 사무차장으로 구성되며 회원은 33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읍면별로 회장, 부회장, 총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대 회장은 황순옥이며 2019년 현재 회장은 박미란이다.

6. 봉사단체

1) 남울진청년회의소

경북지구 남울진청년회의소는 울진군 후포면 정실2길 104에 소재한 봉사단체로서 1985년 6월 22일 울진군 후포면, 온정면, 기성면과 평해읍을 활동지역으로 인준을 받아 설립된 후 2008년 후포청년회의소에서 남울진청년회의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초대 회장은 손백만이며, 2020년 회장은 윤영성이다. 역대 회장은 권종훈·김복득·김승기·정종근·김장수·김용수·송재원·안문용·이재길·최진환·변태경·장성대·황유성·최경호·이동준·이정무·황운용·김정희·장기욱·박영규·박상철·지우효·황현철·장대기·김정재·안미정·김광일·이형종·황현철이다. 남울진청년회의소는 회장, 상임·내무·외무부회장 등 회장단과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우회와 부인회가 유관기구로 활동하며, 현재 회원 30명과, 특우회 42명, 부인회 19명이 활

동하고 있다.

정기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장학사업과 벽지학교 도서전달사업, 영신모자원 등 사회복지시설돕기사업, 소년소녀가장돕기사업과, 지역 청소년 선도사업, JC동산가꾸기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1990년에 창립5주년기념탑을 건립하였다. 19954년에 서울 여의도JC와 합동사업으로 갈매기[군조]탑을 조성했으며, 1995년에 여의도JC와 후포에서 합동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1996년에 지역 내 4개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여의도JC와 청소년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1997년에 후포리에 후포JC회관을 건립하였다. 2003년에 한마음음악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제1회 울진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를 주관하였다.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는 2020년까지 17회째 이어오고 있으며 한마음음악회도 2016년까지 14회 개최하였다. 2010년에 울진·영덕JC와 함께 지방JC활성화를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 2005년부터 서울 여의도JC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치어방류사업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2) 아이코리아 울진군지회

아이코리아(ai corea)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건전한 성장을 도우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민주시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1981년에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자 평생 교육 기관이다.¹⁹ 1985년에 아이코리아 울진지회가 개설됐으며 △어른과 어린이 모두를 아울러 봉사하고 △ 더 나은 나, 더 나은 우리, 더 나은 베스트 버디스의 가치를 향해 함께 하는 사람들을 지향한다. 초대 회장은 조남주였으며, 2019년 현재 강복희가 지회장을 맡아 1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역 내 취약계층 고등학생 학비 지원과 일일교사 활동을 통한 장애인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3) 울진군 로타리클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에 있는 지역 봉사단체이다. 봉사의 이상이 모든 가치 있는 사업 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하는 데 설립의 목적이 있다.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사업과 전문 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회원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셋째, 회원은 개인 생활이나 사업 및 지역 생활에 있어서 항상 봉사의 이상을 실천하도록 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 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의를 통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친선, 평화를 증진시킨다.

19. 아이코리아(<http://www.aicorea.org>) 참조

1990년 3월 28일 포항로타리클럽의 발기로 창립하여 그해 5월 23일 RI의 승인을 받았으며 당시 회원은 56명이었다. 초대 회장은 박순영이다. 울진로타리클럽은 클럽운영위원회, 봉사프로젝트위원회, 로타리재단위원회, 클럽홍보위원회, 회원증강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클럽 운영 및 지역 봉사, 그리고 클럽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 수를 증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성 회원을 중심으로 1990년 3월 28일 개나리회를 결성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5년 1월 28일 울진연호RC를 구성하여 지평을 확대했다.

2013년 10월 17일, 국제로타리 3730지구 새황지RC와 2018년 8월 22일 국제로타리 3700지구 이무스RC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2013년과 2014년에 봉사프로젝트부문 최우수클럽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과 2015년, 2018~2020년에 군부 최우수클럽상을 수상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찾아가는 노인 돌봄 봉사활동,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 물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로타리클럽 3지역지구보조금사업으로 울진 저소득가정 집수리봉사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 울진 저소득가정에 연탄, 등유 지원 활동과 함께 울진지역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0년 초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카 전달식을 가졌다.

역대 회장은 초대와 2대 박순영을 비롯하여 장재강·김중률·장성희·이건휘·주응영·이기오·전주수·김재환·윤근오·김정희·장상규·강성덕·이용신·정운용·공명식·김정·전중호·고현요·권영호·주지한·조규도·안영복·홍성찬·신현동이다. 회원 수는 98명이며 정례 조회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고 정례 이사회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목요일에 열고 있다.



<그림 3> 울진군로타리클럽 회관

4) 울진군 여성단체협의회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여성단체들의 협의체. 지역사회의 각 여성단체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국가 발전 사업과 지역사회 발전 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1992년 6월 13일 설립됐으며 초대 회장은 김영순이다.

각 여성단체와의 친목 도모 및 지역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동거 부부 합동결혼식, 여성대회 개최, 자원봉사활동, 무의탁 불우 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정 후원 사업, 평생교육 사업, 농가 주부의 지위와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 여성 사회의식과 자주성 고취를 위한 사업, 다문화가족 교육사업, 역량 강화 국내외 워크숍, 각종 축제 및 지역 내 봉사활동 참여 등 울진군 발전과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울진군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소비자교육중앙회울진군지부·금강송사랑회·새마을부녀회 울진지회·울진여성예비군소대·아이코리아울진군지회·한국여성농업인 울진군연합회·한국생활개선울진군연합회·울진여성의용소방대·울진여성자원봉사협의회·한자녀더갓기운동연합울진군지회·한국부인회울진지회·농가주부모임울진군연합회·새마을후원회울진지회·우진다우회·대한적십자봉사회울진지부·울진군재향군인회여성회·국제여성총연맹울진군지부 등 17개 단체이다. 2019년 현재 회장은 정혜선이며 17명의 임원과 개별단체의 회원 5,000여 명이 소속된 거대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종합 자원봉사단체이다.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추어 자원봉사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의 확산을 돕고 자원봉사의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참여를 촉진하고 개발 및 육성과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들의 수급과 관리 지원, 자원봉사 인식증진 및 위상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2003년 8월 11일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를 근거로 설립하였고 울진군청과 혼합 직영하고 있다. 2009년 법인설립 발기인 창립총회를 갖고 같은 해 3월 9일 (사)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허가를 득했다. 또 같은 해 4월 9일 (사)울진군종합자원봉사센터 개소식을 가졌으며 11월과 12월에 경상북도 우수자원봉사센터로 연이어 선정됐다. 2013년 1월부터 울진군보건소 이동 목욕차 위탁운영을 개시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1일, IBK기업은행 ‘참! 좋은사랑의 밥차’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2014년 12월에 2014 안정행정부 자원봉사센터 평가 최우수센터로 선정됐으며 2016년 12월,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시군 평가 우수센터로 선정됐다. 2017년 12월29일에 행정안전부 11.15 지진 대응 유공 단체로 선정되고 2019년 12월에 경상북도 최우수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됐다.

사무국 직원 수는 9명[소장, 사무국장, 팀장 2명, 주임 2명, 팀원 3명]이다. 초대와 2대 이

사장은 최기탁 전 울진군기획실장이며, 3~4대 강윤석 덕구온천관광호텔 대표가 역임했다. 현재는 황재길이 재임하고 있으며 122개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자원봉사자 7,998명을 보유하고 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1365 동네방네 긴급지원사업, 찾아가는 청소년자원봉사 박람회,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지원사업, 사랑이 머무는 행복정류장, 희망울진행복만들기, 자원봉사재능나눔아카데미, 자원봉사단체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청소년 자원봉사캠프,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발간, 이동목욕 운영사업, 울진행복가족봉사단 사업, 울진군 노블리스오블리주 실천 릴레이캠페인, 신종코로나19 대응 예방 활동 등의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여성자원봉사프로그램, 자원봉사거점센터, 자원봉사소식지·웹진 제작,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행복가족봉사단, 찾아가는자원봉사교육, 자원봉사단체 리더워크숍 실시,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 각종 지역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찾아가는 청소년자원봉사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복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적인 복지의 총량도 확대되어야 하지만, 민간 부분 특히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민간 복지의 확대가 절실하게 요청되므로 자원봉사의 질과 양의 확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호응하는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기대된다.

6) 울진라이온스클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지역사회 봉사단체이다. 세계 인류 상호 간에 이해심을 높이며 건전한 국가 정신과 시민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의 시민, 문화, 사회 및 도덕 분야의 복지 향상, 그리고 정당과 종파를 초월하여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숨은 봉사자를 격려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상업, 산업, 전문직, 공직 및 개인 사업 활동에 있어서 능률을 제고하고 도덕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1975년 4월 15일 대구달구벌라이온스클럽의 발기로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1975년 6월 21일 38명의 창립회원으로 창립총회를 거행하여 초대회장에는 한익식이 당선되었다.

1975년 11월 14일 국제라이온스협회 이사회의 정식 승인으로 ‘헌장의 밤’이라는 행사를 하였으며 1976년 6월 12일 본 클럽이 발기한 죽변라이온스클럽의 창립총회 겸 창립 1주년 행사를 하였다. 1985년 6월 21일 창립 제10주년을 맞아 봉사탑을 건립하고 1991년 11월 10일 울진라이온스클럽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다. 1993년 6월 30일 제18주년 행사 및 회관 건립 준공식을 가졌다. 2001년 6월 21일 창립 26주년 기념 봉사 사업의 일환으로 사자탑을 제막하였다.

1999년 6월 28일 미국에서 열린 제82차 라이온스세계대회에 참가하였고, 2003년 6월

30일에 미국에서 열린 제86차 라이온스세계대회에 참가하였다. 2007년 10월 13일에는 대구에서 열린 제46차 동양 및 동남아대회에 참가하였다. 국제협회와 중앙 지구에 의무금을 지원하고 시력 우선 사업 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 불우가정, 소년·소녀 가장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봉사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2009년 355-H지구 제21회 지구년차대회 최우수 I.C.I.F클럽상을 수상하였으며 2016년에 356-E지구 제29회 지구년차대회 종합특별봉사클럽상을 수상하였다. 매년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다문화국적 취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역대 회장은 초대 한익식을 비롯 장상진·이준섭·최상정·심흥섭·임사규·장석현·황원근·남호익·임성율·전기순·황치엽·최승태·주호원·추성두·최천환·전광순·박원탁·주대용·윤원규·이창우·장기택·이규목·박달수·반기성·엄상기·장동욱·이만직·이종수·최기탁·주시영·김삼창·강현덕·진보은·주시원·신용득·주문환·최주철·주광돈·양해용·박기봉·최중일이다.

7) 울진청년회의소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에 있는 지역 봉사단체로서 사회지도 역량 배양, 지역 사회 개발, 세계 회원과의 우정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여 JC 본연의 이념을 같이 하는 청년들의 응지와 정열을 한데 모아 자주, 자립, 자발, 실천력으로 복지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데 총력을 다 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울진청년회의소는 1975년 5월 3일 울진청년회의소가 발기하여 1975년 8월 3일 174번째로 인준을 받아 출범하였다. 초대 회장은 오주석이다.

1979년 5월 제3회 성류제 씨름 부문을 주관하고 1980년 4월에 제1회 학도체전을 개최하였다. 1981년 1월 신년교례회를 주관하여 2020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또 1981년 남서울JC와 자매결연식을 조인하고 1984년 제1회 울진JC특우회 회장 친선 테니스대회를 후원하였다.

1991년 정부가 울진지역에 원자력발전소 17기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당시 회장이던 주광진은 울진원자력발전소건설 및 핵폐기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원전 추가건설과 핵폐기장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주광진 울진청년회의소 회장과 후포JC회장이 맡았으며 반핵청년협의회 북면생존권대책위원회, 근남면청년회 등 울진지역 80여 개 사회단체가 참여했다.²⁰ 1992년 울진군민체육관에서 울진군민을 위한 음악회를 열고, 1994년 어린이한마당행사를 개최한 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2000년에 왕피천자연보호캠페인을 전개하고 2002년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20. 울진군, 2001, 『울진군지』상, 464쪽

를 주관하였다.

2008년에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자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2009년 8월, 제40차 경북지구JC 회원대회를 울진군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하였다. 2010년에 지역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11년에 울진군민체육관에서 초등학교 독서골든벨을 개최하였다. 2019년에 김지운이 회장으로 취임해 신년교례회를 주관하고 어린이날 한마당 축제와 서울 영등포JC와 합동 월례회, 경북지구JC대회 참가 등을 통한 연대 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오주석 초대 회장을 시작으로 역대 회장은 전응수·주창돈·김경노·주상덕·장덕열·송영주·주성용·도치각·도지현·손병호·정원영·김성국·장원수·주광진·이종삼·남상중·김한용·임병윤·백봉기·주성열·장용훈·장국태·김광수·이은필·양승철·장명중·노광욱·장복중·임형욱·권요성·신정섭·전중삼·김형수·전종식·정창교·남상천·홍충표·김태종이다.

8) 울진청소년지킴이

청소년들을 위한 상호협력, 연대 활동을 통하여 변화하는 청소년 환경에 맞춰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24일 발족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2008년 창립 이후 2019년 지금까지 매년 청소년어울림마당을 개최해 오고 있다. 또 2013년부터 지역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 발굴과 건전한 여가활동 선양을 위해 울진군청소년가요제를 개최하고 있다. 초대 회장은 임형욱이며 2019년 현재 전종식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2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9) 의용소방대 연합회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1932년 2월 5일 평해의용소방대가 처음 설립됐으며 이어 같은 해 2월 10일에 후포의용소방대가 창설되었다. 또 1935년 11월 1일 북면의용소방대가 창설되고 1941년 5월 11일, 죽변의용소방대와 북면나곡지역대가, 1948년 5월 4일에 울진·근남·원남[현 매화면]·서면[현 금강송면]의용소방대가 설립되었으며, 1949년 1월 1일 온정의용소방대가 창설되었다. 1960년 1월 1일 기성의용소방대가 설립되고 1983년 2월 1일 후포여성의용소방대와 같은 해 10월 15일 울진여성의용소방대가 설립되었다. 이어 1989년 11월 29일 평해여성의용소방대가 설립되고 2003년 7월 12일에 죽변의용여성소방대, 2014년 1월 22일 온정여성의용소방대, 같은 해 1월 29일 북면여성의용소방대가 설립되었다. 2020년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여성소방대원 포함 58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17개대 455명이 활동하며 대장, 부대장, 총무·방호, 지도부와 보급

반, 재난대응반, 서무반, 구조구급반, 예방홍보반, 현장관리반의 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개최[매년 실시], 의용소방대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도 대회, 매년 참가], 대형 산불 발생 시 진화 참여 및 식사 공급,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여름 휴가철 계곡 및 해수욕장], 독거노인 등 목욕 봉사[매월 실시, 덕구온천]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초대 회장은 지효원이며, 2020년 현재 남성 연합회장은 김성찬, 여성 연합회장은 박애자이다. 역대 회장은 진명화·남경순·이규록·박창근·장창수·장문동·이강두·진충국·장효덕·이상신·김태환·장대봉이다.



<그림 4> 평해의용소방대

10) 자율방범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치안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이다.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2018. 7. 23]과 울진군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2015. 11. 17]에 설치 근거를 두었으며 1980년도 말 무렵, 지역 내 각 파출소 자생 단체로 활동하다가 2001년도 울진군 통합 자율방범연합대를 발족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초대~6대까지 회장은 김승현[근남면]이며 2019년 말 현재 안태욱[북면]이 회장이다.

10개 읍면 14개 대[남대 12, 여대 2]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현행범 체포,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기아, 가출인 보호, 경찰과 합동 근무 사고 현장 출동, 무질서 행위, 오물 무단투기행위 등 계도, 각종 지리 안내, 지역 내 주요행사장 등 질서 유지 및 기타 경찰업무 협조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1) 자율방재단

지역 내 재해 발생 현장에서 민간부문 예방·대응·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방재조직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와 울진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07. 8. 6. 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3년 창립됐으며 초대 회장은 최병식이며 2020년 현재 회장은 권오운이다. 10개 읍면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118명의 방재단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재단은 상황총괄반, 현장에 찰반, 응급복구반, 장비지원반, 재난구호반, 홍보반으로 편성돼있다. 주로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안전 캠페인, 재난복구활동, 타지역 지자체 피해복구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2) 청지회

청지회는 울진읍에 사무실을 둔 지역사회 봉사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1980년 11월 23일 지역사회 개발과 노인 분야 봉사활동을 위해 지역의 백광일, 최병욱, 전태욱, 김성준, 주기홍, 이종삼, 장상섭, 심중엽, 정국현, 김석규, 장만엽, 장헌술 등 청년 20여명의 회원으로 설립됐다. 청지회 조직에는 ‘1. 40세 미만 청년으로 한다. 2. 회원가입에는 동종의 사업자가 없게 한다’라는 두 가지 원칙을 세워 울진군내에서 사업하는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설립 이듬해인 1981년 3월 18일 울진남부초등학교 부설 단체로 인가받았으며, 1982년 4월 23일 대한노인회울진군지회 부설 청지노인학교를 설립했다. 2001년 7월 11일 경상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청지회는 지역사회 개발에 필요한 사업과 노인복지 사업을 전개하며 특히 노인 관련 다양한 학습,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노인복지와 노인 문제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특히 청지노인학교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에게 건전한 취미생활, 노후 건강유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의욕을 고취해 지역사회에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매주 1회 출석 수업 일을 정하고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해 특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등 노인복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 공로로 청지회는 1982년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필두로 1985년 울진군문화상, 1994년 경상북도 일하는 도민상 봉사상을 수상했다. 또한, 1996년 포항MBC 문화대상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1998년 삼성복지재단으로 경로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2018년 5월 경북도지사 표창과 상패를 받았다. 청지회는 1994년에 창립 16주년 기념 국악대잔치를 주관하고 1997년에 울진연호 축제를 처음 개최한 후 2000년까지 4회에 걸쳐 축제를 주관하며 노인 복지신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경로위안대잔치를 주관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게이트볼대회를 주관하여 노인 여가활동을 선양하였다. 2008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찾아가는 노인 교실’을 운영하였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울진군등불학교

와 도전골든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노인복지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대 회장은 백광일이며, 최병욱, 전태욱, 장상섭, 정국현, 전홍영, 최국희, 김석규, 권영화, 박덕기, 추연태, 김상국, 황서강, 이성우, 김갑준, 반재하, 이정석, 노만술, 김대업, 전종건, 이인호, 장인승, 장인주, 장경식, 김용중, 최홍석, 전우석, 이갑성, 장용윤, 배진호, 반대호, 최형근 회장을 거쳐 현재 진승기가 40대 회장을 중심으로 2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7. NGO 단체 및 노동단체

1) 울진군청년연합회

울진지역의 청년단체 친목 도모와 원자력발전소 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청년 계층의 의사를 대변하고 공익적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건설을 위해 2009년 지역 내 10개 읍면 청년회를 회원 단체로 구성된 연합단체이다.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각 읍면 청년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결정하는 의결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현안 등 지역사회 현안에 공동대처하는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의 공동의장단으로 편성되며 사무국과 10개 읍면 청년회 회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대 회장은 장동조이며, 2019년 말 현재 연합회장은 장재묵이다. 2011년 구제역, 폭설 재난, 기성 산불, 경북도민체전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경북어린이 내고장 바로알기체험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 이 체험프로그램은 매년 전개하고 있으며 2012년에 울진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준비위원회에 공동대표단으로 참여하여 현재까지 청년연합회장은 범군민대책위원회 당연직 공동의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4년에 신한울원전 1, 2호기 관련 8개 대안 사업 협상 타결을 끌어냈으며, 동해선 철도 부실 공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또 죽변비상할주로 폐지 투쟁을 주도하였다. 역대 회장은 초대 장동조를 비롯 이선희, 정안일, 도한민, 이정우, 천창원, 임동인, 방종호, 이상균, 장재묵이다.

2) 울진금강송세계유산추진위원회

울진금강송세계유산추진위원회는 울진군의 대표적 명품 브랜드이자 세계적 특산물인 울진금강소나무와 금강소나무숲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2009년 발족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2009년 3월 3일 주민 70명과 출향인 30명 모두 100명의 발기인으로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울진금강소나무 자원의 보존과 탁월성을 홍보하고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수호제 및 학술대회, 문화축전, 울진군민 다짐 대회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약 1,1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2010년 9월 울진금강송세계유산 잠재목록등재를 위한 타당성 최종용역보고회를 하고 2011년 9월에 울진금강송 포럼을 개최했다. 같은 해 12월 제2회 울진금강송세계유산등록 수호제 및 범군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수호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2~2013년에 금강

소나무알리기 사진전을 개최했다. 2013년 7월에 울진금강소나무의 탁월성을 담은 자료집 「생활속의 울진금강송」을 발간하고 같은 해 12월에 「울진금강송의 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2014년 11월과 12월에 초청 강연회와 학술세미나를 가졌다. 2019년 2월에 산해문화상을 수상하고 경상북도에 울진금강송세계유산 추진 건의문을 발송했다.

세계유산분과와 지질분과 등 7개 분과와 10개 읍면 지회, 10개 읍면 여성위원회, 출향인사 모임 등을 두고 있으며 초대위원장인 임영수가 2019년 현재까지 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다.

3)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울진지역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해 연구, 군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는 시민 정신을 일깨워 장차 지역사회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듭을 목적으로 1998년 1월 17일 발족한 울진 첫 시민사회단체이다.

1989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울진지역에서는 울진 원자력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운동이 시작되었다.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전개한 울진주민의 항의 사례는 1989년 1월 24일 시작하여 1994년 11월 정부가 굴업도를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지정·발표하면서 1994년 11월 23일 최종 종결됐다.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원전 건설로 인한 환경과 지방 자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지역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범군민대책위원회 성격의 연합체가 결성되어 운영되었다. 이 가운데서 일련의 지역사회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원전과 핵폐기장 반대운동과 시민 정신을 계승해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혁 운동이 필요하다는 당위를 가지고, 상식이 통하는 울진 건설을 위한 시민운동의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1998년 1월 17일 창립총회와 함께 반핵·환경위원, 복지위원, 집행위원, 교육위원, 노동위원의 분과기구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초대 소장은 정일순이다. 1999년 9월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2000년 8월 울진군 규사 채취 전면 취소 성명서를 채택하고 규사 채취·반출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2000년 9월, 평해 광업소 채굴장 빗물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2000년 9월 8일 민선 2기 군수인 신정 군수의 뇌물 사건 등과 관련하여 부도덕, 도덕적 패륜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2001년 4월 신정 군수 등 뇌물정치인 사퇴 촉구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고 2001년 6월 왕피천 성류온천개발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왕피천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2001년 10월 16일 지역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울진핵발전소추가건설저지투쟁위원회[핵

투위]를 결성하고 지속적인 반원전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2002년 12월 14일 여중생 살인 미군 구속과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울진군민 평화촛불추모제를 개최하여 지역사회에 인권 활동의 지평을 열었다. 2006년 8월 울진농민회와 연대하여 한미 FTA 반대 울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FTA 반대 운동과 함께 식량 주권확보 운동을 전개하였다.

2008년 10월 울진 시민사회단체와 울진 군정 평가와 발전을 위한 울진군수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1년 1월 울진군의 근남 산포지역 핵발전소 유치동의안 제출에 대한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말, 인적 오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국형 표준 원전 울진 원전 3, 4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2년 8월 정세와 지역 운동의 방향에 대해 김승호 전태일노동연구소장 특강을 가졌으며 2014년 7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정태인 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해 시민운동의 대중화를 모색했다.

2014년 10월,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세진 군의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퇴진 운동을 전개하여 이세진 군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끌어냈다. 2014년 10월 ‘과학자본주의 시대와 생명에 대한 예의’의 주제로 서울대 우희종 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하고 2014년 11월 노동자교육센터 박준성 ‘사진과 노래로 보는 근현대사’ 특강을 열었다. 2015년 9월 19일 ‘지방자치 기초의원들 정치역량과 역할’의 주제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강연회를 갖고 2016년 7월 원전 예정 부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김창오 군의회 의장 및 비리 군의원들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지역에서 여러 번 개최하였다.

2019년 9월 19일 울진군민과 함께하는 제1회 인권문화제를 개최하고 2020년 6월 울진군 불법 과다 골재채취에 대한 직무유기 성명서발표 및 직무유기 혐의로 울진군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 울진지역사회의 울골은 주민자치 신장과 민주사회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역대 소장은 초대 소장인 정일순을 비롯하여 황윤길, 황천호, 조상현, 주종열이며 2020년 현재 소장은 김신애이다. 이상훈과 전양규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4) 울진참여자치연대

울진 사회 전반에 걸쳐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초석을 자임하며 2000년 8월 7일 창립대회와 함께 창립선언문을 발표하고 공식 출범하였다. 이후 울진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제시하며 군민 기본권리 찾기 운동, 자치행정 감시 운동, 왕피천보존 운동, 원전추가건설 반대와 핵폐기장 반대 운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다. 창립 당시 발기인은 박기호·김진문·김경하·김장현·이규봉·장시원·승윤 스민·남주현 등 20여명이다. 또 단체의 자문위원으로는 울진 출신인 문일호 변호사, 녹색연합 남상민, 부산일보 강진철 기자 등이 참여하였다. 출범 당시 대표는 김장현, 실무 간사는 이규봉, 장시원이 맡았다. 또 2001년~2004년까지 공동대표는 박기호, 김진문이며 실무 간사는 이규봉, 장시원이 수

행했으며 2005년~2010년까지 김경하, 승운 스님이 공동대표로 선임되고 실무는 장시원이 맡았다.

2000년 6월 9일 왕피천살리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왕피천 보존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이 기구에는 울진군농민회[회장 이용운], 전교조울진지회[지회장 김진문], 울진사회정책연구소[소장 황윤길], 울진참여자치연대(준) 등 지역 NGO 단체와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박기호, 사무국장에는 이규봉이 선임돼 2002년까지 ‘성류온천개발’로 불거진 왕피천보존문제를 전 군민들에게 확산시키며 지속적인 왕피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기간 성류온천 반대, 속사댐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2005년~2006년까지 왕피천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0년부터 전교조울진지회 중심으로 왕피천생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에 울진군의회 의장선거 금품수수 의혹 관련 울진군의원 전원 퇴진 운동을 통해 △ 군의회 외유성 견학 반대 운동 전개, △ 군의원 외유경비 반환소송 전개 △울진군의 정회설치육성조례안 반대 운동 전개 △ 2002년 군수판공비 공개 소송 전개 △ 뇌물수수 신청 군수 사퇴 운동 등 행정감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부터 군민기본권 찾기운동으로 △2000년 FM 난청 해결 운동 전개 △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 규탄 및 SOFA 개정 촉구 집회 △ 온정 성문화전시관 설립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 울진해폐기장 반대 운동 연대 △ 덕천 신규원전 반대 운동 전개, 덕천대안제시 반대 운동 전개 △ 울진 원전 추가건설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2006년에 금강소나무숲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참여하였으며 2009년에 금강소나무숲길 운영을 위한 (사)울진숲길을 발족하고 2010년~2012년까지 (사)울진숲길이 금강소나무숲길을 위탁 운영하였다. 이어 2010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 엑스포공원 목공체험장 운영과 울진 둘레길 조성 및 울진 생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 월송포진(越松浦鎭) 복원 추진 모임

2012년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사의 주둔지인 월송포진성터가 발굴됨에 따라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정면으로 분쇄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유적이라 판단하여 이의 조속한 복원이 절실하게 되었다.

향토사 연구가 김성준·김종기·황원근·황영규 등 4명의 발의로 120여 명의 순수 민간단체가 2012년 4월 결성되었다. 이들 단체는 매년 울릉도, 독도 지키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독도 지키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초대회장 황무평, 고문 황원근, 사무국장 김성준이 단체의 기틀을 공고히 했으며, 현재는 회장 김종기, 부회장 김성준, 장현겸, 사무국장 김명성과 1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진군지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민에 대한 열린 행정과 참봉 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특히 참여하는 의식 속에 행동하는 공직자상의 정립으로 군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의 선도자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노동단체이다.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공무원의 노동조건개선과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 노동삼권 쟁취, 민주사회건설과 세계평화를 위한 국내외 단체 연대, 분단된 조국의 자주, 민주, 평화통일 지향,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인간의 존엄성 실현 등 6대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²¹⁾

2001년 11월 4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 창립, 출범하고, 2002년 3월 23일 고려대학교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대의원대회를 시점으로 노동조합 결성에 나서 2007년 6월 23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하였다. 2009년 6월 3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합의하고 같은 해 9월 26일 통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1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규약 등을 제정하였다. 이어 2010년 2월 23~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명칭과 규약을 개정하고 2012년 10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회를 열고 2018년 1월 17일 제9기 임원을 선출하면서 노동부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

울진군의 경우, 1998년 12월 24일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 2001년 11월 23일 울진군직장협의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그해 12월 18일 제1기 울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처음 출범했다. 초대 회장은 김창수이며 2대 회장은 안운창이다. 이어 2004년 5월 13일 군청, 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등 3개 직장협의회가 단일화 조직 결성을 합의하고 울진군공무원협의회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4년 8월 13일 제1대 울진군공무원협의회가 출범하였으며 초대 회장은 박계홍이다. 울진군공무원협의회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이어졌으며, 2~7대 회장단은 박계홍, 장진환, 정대교, 금동찬이다.

2019년 4월 16일 제1대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이 창립대회를 하고 공식 출범했으며 초대 위원장은 장상묵이다.

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진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의 각급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와 교직원들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강령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해 1987년 9월 27일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협의회를 창립하고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창립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울진지역의 전교조 창립 역사는 1986년 3월, 울진중고등학교 사무분장 형평성 문제가 불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http://www.kgeu.org>) 참조

거지면서 학교 민주화에 대한 움직임이 태동했다. 이어 1986년 10월, 당시 대학 입시를 위한 체력검사 관련한 교권탄압 저지 운동이 일어나고 1987년 울진지역의 각급 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사단체 건설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소모임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 당시 교사단체 건설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김진문이, 중등학교는 이석우가 소모임을 주도했으며 조운용·정종인·이웅기·김우연·황찬일·김종일·임향수·윤정희·최정순·최외정·박노덕·이원철·김은석·황승호·이남근·정경옥·박미경·김미경희·이상승·김영옥·이기호·방기복·최원영·장순옥 등이 활발하게 참여하였다.²²

이어 1987년 12월 9일, 울진천주교회에서 경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민주교육추진 울진교사협의회가 창립됐다. 50여 명의 지역 교사가 참여했으며 고문에는 강두희[평해종교], 회장은 조운용[평해종교], 사무처장은 이석우[울진종교]교사가 선임됐다. 또 1988년 10월, 후포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평교사협의회가 결성됐으며 당시 회장은 이기호이며, 부회장은 이권주이다.²³

울진교협은 창립 이후 민주적 인간화 교육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교사 권익 신장을 위해 김민남 교수 초청 민주교육강연회[1988. 7. 7], 울진지역 기관장 대 통령선거 부정개입 규탄 울진지역 교사 양심선언문 발표[1987. 12], 전교협소속 울진중고 교사 강제전출 규탄[1988. 12], 울진지역 교사 인사발령 시기 개선 촉구 서명운동[1987. 12], 전국교사대회 참가[1987. 11. 7], 한겨레신문 보급 운동[1988. 1], 죽변종합고등학교 학내민주화 요구 투쟁[1989. 4. 10] 등을 전개했다.

1989년 5월 28일 연세대학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창립, 출범함에 따라 같은 해 6월 20일 후포성당에서 지역 30여 명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진지회가 창립되었다. 이들 지역 교사들은 창립결성선언문을 통해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가능성을 구현하는 교육환경의 인간화, 교육 내용의 민주화, 다양화, 교육 주체의 자주성 확보 등 말단 관료로서의 예측과 굴종 의식, 무사안일과 패배주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교육의 진정한 주체로 당당히 서서 민주, 민족, 인간화 교육에 힘쓸 것을 학생과 학부모, 민족사에 엄숙히 맹세한다.”라고 선언했다.²⁴

울진지회 초대지회장에는 이남근[죽변종교]이 선임됐다. 결성 당시 가입 조합원은 13명이다. 전교조 결성 이후 당국은 대대적 탄압으로 들어가 1백여 명의 교사가 구속되고, 1천 5백71명이 해직되었다. 울진지역에서도 7명의 교사가 파면·해임되었다. 당시 해임된 울진지역 교사는 다음과 같다.²⁵

22. 김진문·이석우, 2004, 「울진지역의 초창기 교원노조 운동사」 『사향』2, 울진문화원부설 울진역사연구소, 61쪽

23. 김진문·이석우, 2004, 위 논문, 59쪽

24. 김진문·이석우, 2004, 위 논문, 70쪽

25. 김진문·이석우, 2004, 위 논문, 71쪽

송춘길[국어, 평해여자종합고등학교, 해임], 임향수[국어, 울진종합고등학교, 해임], 박미경[생물, 죽변종합고등학교, 파면], 이남근[역사, 죽변종합고등학교, 해임], 정경옥[국어, 죽변종합고등학교, 해임], 금현옥[상업, 죽변종합고등학교, 해임], 김미경[물리, 기성중학교, 해임]

전교조 울진지회는 창립 이후 학교 현장에서 참교육 실현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당시 이들 전교조 울진지회가 전개한 활동은 울진군 지역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1990. 10], 울진글쓰기교육연구회[1991], 남부, 북부초등 소모임[1992], 성과급 거부, NEIS 인증 거부 운동 전개, 학교 예산 관련 설문 조사, 교과 모임[열세통세모임] 활동, 과학교사모임, 동화읽기모임, 어린이날 행사 개최, 울진자연생태학교 운영, 교육영화 상영과 연극공연, 풍물학교 운영, 초청강연회 및 지역시민단체 연대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며 민주화 참교육의 지평을 확산하는 데 주력해 왔다.²⁶ 특히 어린이날 행사는 전교조 울진지회가 처음으로 주관하여 개최해 오다가 1990년 중반 이후 울진청년회의소와 공동주최했다.

1992년 6월 21일 전국교사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교육대 개혁과 해직 교사 원상복직, 전교조 합법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94년 3월 전교조 창립 당시 해직된 교사들이 복직하고 1999년 7월 1일 전교조가 합법화되었다. 울진지역 역대 전교조 울진지회장은 초대 이남근을 필두로 이정원·김진문·배호식·장상동·박태규·권일·신정원·조승조·최진열·이동희·이동철·오은경·이지형·신재욱 등이다.²⁷

8) (주)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노동조합

(주)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노동조합은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에 속하여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한울원자력본부 내에 있는 노동단체이다. 1981년 전력노조 산하 조직인 한국전력공사 전국전력노조 월성원자력지부 울진원자력분회로 발족했으며 초대 분회위원장은 함영우이다. 1984년 3월, 한국전력공사 전국전력노조 울진원자력지부로 승격했으며 함영우가 초대 지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이어 1998년 울진원자력본부 내 소·실별 분회를 설립하고 직할행정실지부 위원장에 김옥산, 제1발전소지부 위원장은 박학기, 제2발전소지부위원장은 전진수, 건설소[5·6호기]지부위원장은 정일권이 당선됐다. 이어 1999년 3월 치러진 울진원자력본부 지부위원장 선거에서 윤원석이 당선됐다.

2000년 11월 17일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수력·원자력 및 발전 5개사 분할을 저지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2001년 3월 31일 정부는 한전을 한국수력원자력

26. 김진문·이석우, 2004, 위 논문, 72~75쪽

27. 종북 지회장은 생략하였다.

과 발전 5개사로 분할했다. 같은 해 4월 2일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창립되고 이어 4월 18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같은 해 5월 29일 제5·6년차 전국전력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조합 분할을 결의하고 같은 해 6월 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노동조합 울진원자력지부위원장 선거에서 한순탁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 직할행정실분회위원장은 김옥산, 제1발전소분화위원장은 강진구, 제2발전소분회위원장은 이상진, 건설소분회위원장은 남건호가 당선됐다. 같은 해 8월 29일 창립총회를 갖고 울진원자력지부가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어 2012년 신울진건설소지부 창립총회를 갖고 윤원석이 초대지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13년 3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주)노동조합 울진원자력본부 제5대 위원장 선거를 통해 최남철이 당선됐으며 2014년 2월 13일 회사의 개명으로 노동조합 명칭이 한울원자력본부 노동조합으로 변경되었다. 2015년 7월 17일과 2017년 10월 16~17일 이틀간 노동조합 상급단체 선택 가입인증 투표를 실시하여, 한국노총[14.46%], 민주노총[26.41%], 무효[59.13%]로 부결됐다.

2019년 3월 20일 제7대 위원장 선거를 갖고 본부위원장에 최남철이 당선됐으며, 직할대외협력처지부위원장은 남정규, 제1발전소지부위원장은 조민우, 제2발전소지부위원장은 이경덕, 제3발전소지부위원장은 김건형, 신한울1발전소지부위원장은 이익수, 신한울제1건설소지부위원장은 류곤희가 당선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어 2019년 12월5일 제97차 한수원(주)노동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청원경찰지부 설립이 승인되고 2020년 3월 18일 한울원자력본부노동조합 청원경찰지부 창립총회에서 초대 지부 위원장에 장기봉이 선출됐다. 한울원전노조는 감사, 선관위원, 수석·조직·복지부위원장과 사무·정책·조직연계·평등사회·복지생활·생활체육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주)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노동조합은 내부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상생을 모토로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역과 함께 펼친 활동으로는 2002년 지역민과 함께 야외에서 월드컵 경기 시청(5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 여름밤의 야외 영화상영, 지역 어린이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실시], 노동조합과 지역민이 함께 하는 초청 마당극[흥부네 박터졌네], 지역민과 함께하는 안치환과 자유 콘서트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 울진군 지역 노동조합단체와 연대 사업으로 신영복 초청강연회[2001. 11. 2.], 하종강 초청강연회[2002. 5. 31.], 홍세화 초청강연회[2002. 11. 13.], 의정부 여중생 추모집회[2002. 12. 7.], 울진군민 평화 촛불추모제[2002. 12. 14.], 100만 촛불 문화대행진[2002. 12. 31.], 민족자주, 반전 평화실현 촛불대행진 참가[2003. 3. 1.], 손석춘 선생님 초청강연회[2004. 11. 19.], 울진 한미FTA범국민비상대책회의 참석[2006. 7. 18.], 전국교직원 노조 울진지회와 한수원 한울본부 노조집행부 축구대회[2006. 11. 23.], 희망버스[부산 김진숙 지도위원 희망버스 합

께 타기] 참가[2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울진 사람들 주최 국정원 선거개입 촛불 집회 참석[3회], 성과연봉제 저지 집회 참석[2016. 9. 22., 서울역 광장], 박근혜 하야 울진지역 촛불집회 참석[2016. 11. 7.], 노래로 배우는 노동의 역사 강연[2017. 2. 23.],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2017. 2. 25.] 등의 연대 활동을 전개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는 2011년 8월부터 울진군공무원노동조합과 울진지역 순회 농기계 수리 봉사활동[예취기 수리]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2002년 1월 27일 안동 봉정사, 하회마을 일대 탐방을 시작으로 울진 등 지역 역사문화바로알기 프로그램을 노동조합 자체로 개발해 2005년 10월 30일 울진봉평신라비, 고산성, 불영사, 진북리 고인돌, 해월현, 월송정, 신돌석 유적지 등 울진지역 탐방, 2011년 11월 20일 울진 고산성, 월계서원, 매화리 고분 공원, 사동 해월현, 월송정, 후포박골[국민 보도연맹 희생지], 울진 오시골[부역 혐의 민간인 희생지], 죽변 후릿개[국민 보도연맹 희생지] 등 울진지역 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등 지금까지 24회의 지역 역사문화탐방을 전개해왔다.

9)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이하 핵안사]

핵안사는 2001년 10월 이후 울진지역 핵폐기장 설치 반대와 신규원전추가건설 반대 운동을 주도해온 울진반핵연대연대와 핵이싫은사람들의 운동 성과를 바탕으로 2011년 공식 출범하였다. 당시 참여 단체는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참여자치연대, 전교조울진지회, 핵이싫은사람들, 울진군농민회 등 지역시민단체와 개인 등 100여 명이다.

초대 집행부는 대표에 홍경표, 집행위원장은 이규봉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표는 이규봉이며 집행위원은 전양규, 이상훈울진사회정책연구소, 핵이싫은사람들, 울진참여자치연대, 전교조울진지회 등이다.

△ 울진삼척영덕 추가 후보지 지정에서 울진제외 운동 전개 △ 울진 원전 7·8·9·10호기 건설 반대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원전 안전 감시활동 전개를 위하여 △ 민간환경감시기구 참여 △울진 원전 방재훈련과 안전교육 상설화를 촉구하고 △ 지진 대책 마련 요구 활동을 전개하였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공약 수립에 참여하고 반핵국민행동, 그린피스, 전국 탈핵조직과 연대하여 탈핵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원전 주변 지역 갑상선암 피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8. 친목 단체

1)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지역 노인단체로서 지역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1969년 3월 노

인 상호 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생적으로 울진경로회를 발족하였다. 1975년 8월 25일 울진경로회를 울진노인회로 변경함과 동시에 정식 설립하였다. 이때부터 정식 명칭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지회 울진군지부가 되었다.

1982년 지회 부설로 노인학교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100여 명의 노인을 교육하고 있다. 1987년 6월 26일 현재의 회관을 준공하고 같은 해 11월 5일 건물 및 대지를 울진군에 기부채납하였다. 1989년 4월 7일 대한노인회 정관 변경과 동시에 지부를 지회로 변경하였다.

역대 회장은 1대 전호무이며 2~3대 김복규, 4대에서 8대 지회장 전무호, 9대 지회장 최상정, 10대에서 11대 지회장 황원근, 12대 지회장 남경순, 13대 이거부 등이며 현재 김성길이 회장을 맡고 있다.

노인의 날 행사와 전통문화 함양 사업, 경로 효친 선양 사업 등을 통해 자본과 경쟁만이 독식하는 풍조를 타파하여 인간 중심적인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 및 노인들의 취업 지원, 교통 봉사 방법 순찰 및 청소년 지도, 환경 미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에는 대한노인회 울진군지회장배 게이트볼대회가 연호게이트볼경기장에서 열려 노인들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 울진군 내 10개 읍·면 분회와 각 리·동에 140여 개의 노인정이 소속되어 있으며 회원 12,665명이 활동하고 있다.

2) 울진군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는 우리 사회의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며 전후 세대 안보 의식과 국가관을 조성함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안보태세 확립의 계기를 마련한다. 1961년 12월 20일 울진군재향군인회를 창립하였고, 1997년 8월 1일 울진군재향군인회 사단법인 허가받아 8월 1일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였다.

조직구성은 회장, 부회장 4명[육·해·공·해병대], 감사,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으며, 회장은 재향군인회 중앙회에서 임명하며 회원은 제대 군인 중 재향군인회 가입한 자로 한다.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국가 발전과 보훈 정책에 대한 협조, 전쟁 억제와 세계평화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구와의 유대 강화하며, 회원들의 복리 증진 및 유공자 간 화합유도, 국가안보 의식 고취에 기여, 국가 안전보장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초대회장은 한익식이며 2018년 현 회장은 강현덕이다. 회원 3,900명이 활동하고 있다.